

↑ 코스피 2503.06 (+6.69)	↓ 코스닥 692.00 (-1.15)
↓ 금리 (연이자율) 2.741 (-0.0326)	↓ 환율 (원/달러) 1395.10 (-2.10)

## 분당·일산 등 13곳 3만6000가구 공급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내달 이주대책·교통 개선안 발표  
정비계획 연내 승인에 적극 협조  
학교문제·분담금 산출 지원 등  
사업지연 요인 사전적 대응키로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정비를 추진하는 선도지구 13곳이 선정됐다. 총 3만 6000가구가 당초 예상했던 최대치에 근접한 규모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와 함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로 13개 구역, 3만6000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선도지구는 지난 5월 선정계획을 발표한 이후 6월 공모 지침 공고와 9월 지자체 평가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됐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최상위 지점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을 지난 18일 고시 완료했고, 이날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을 완료했다”며 “내달에는 그간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온 유희부지 개발, 영구임대주택순환 정비 등의 이주대책과 광역교통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며, 절차가 진행 중인 1기 신도시별 정비 기본계획도 경기도가 차질 없이 연내 승인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규모가 가장 큰 성남시 분당은 셋별마을 동성(2843가구)과 양지마을 금호(4392가구), 시범단지 우성(3713가구) 등 3개 구역에 1만948가구가 선정됐다.

고양시 일산은 백송마을 1단지(2732가구)와 후곡마을 3단지(2564가구), 강촌마을 3단지(3616가구) 등 3개 구역 8912가구가 선정됐다.

안양시 평촌은 꿈마을 금호(1750가구)와 샘마을 등(2334가구), 꿈마을 우성 등(1376가구) 3개 구역 5460가구가. 부천시 중동은 삼익(3570가구)과 대우동부 등(2387가구) 총 6000가구가. 군포시 산본은 자이 백합(2758가구), 한양 백두 등(1867가구) 4620가구가.

국토부는 선도지구로 선정되지 않은 구역 가운데 연립 2개 구역, 1400가구를 별도 정비물량으로 선정했다. 분당 목련마을 빌라단지 1107가구와 일산 정발마을 2·3단지 262가구 등으로 선도 지구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관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선도지구의 원활한 추진을



이-헤즈볼라 휴전, 집으로 돌아가는 차량들

이스라엘 안보 내각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와의 휴전안을 승인했다. 양측간 전쟁이 발발한지 416일 만이다. 27일(현지시간) 레바논 가지에 도로가 고향 마을로 돌아가려는 실항민들의 차량으로 교통 체증이 발생하고 있다. /뉴시스

위해 ▲학교 문제 사전 해소 ▲분담금 산출 지원 ▲전자동의 방식 도입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사업지연 요인에 사전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이와 함께 통합정비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안정적으로 적기에 조달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향후 신도시별 기본계획 등에 특별정비 예정구역별 순차정비 개념을 도입해 내년부턴은 공모 없이 주민제안 방식으로, 연차별 정비물량 내에서 승인해 나가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 “향후 6개월, 韓산업 골든타임 정부, 업계지원 총력 다할 것”

###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최상목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 반도체·AI 혁신 생태계 전면 지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향후 수개월의 시간에 우리 산업의 명운이 달려 있다며, 정부가 업계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한국반도체 산업협회에서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보편관세를 비롯한 정책 기조가 현실화하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주요국이 첨단산업 주도권을 위해 보조금 지원 등 총력전을 펼치는 상황 등을 언급했다. 이어 “우리도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해 기술어진 운동장을 교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6개월이 우리 산업의 운명을 가르는 골든타임”이라며 “정부는 서포터가 아닌 기업과 함께 달리는 ‘플레이어’가 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운영계획과 더불어 주요 업종별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 방안,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 기구축 방안에 중점을 뒀다.

최 부총리는 “후발국의 기술추격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다. 디지털·친환경 전환 요구도 커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난 30여 년간 우리 산업은 기업이 앞에서 달리면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는 전략으로 경쟁력을 유지해 왔다고 운을 댄 뒤, “하지만 이제는 국가가 산업경쟁력 전면에 나서서 주요국 사례를 볼 때, 이러한 과거의 성장방식을 고수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들이 글로벌 산업경쟁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산업 정책도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력산업의 리스크 관리를 해나가겠다고도 했다.

회의에서 그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2030년까지 총 4조 원 규모의 민관 합작 투자로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국회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출자와 대출을 합쳐 4000억 원 규모의 AI 컴퓨팅 인프라 투자를 실시할 계획이다.

AI를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지원의 질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회의 직후 최 부총리는 경기 성남에 위치한 국내 AI-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을 방문해, 국산 AI-반도체 설계 및 개발 현장을 점검했다.

현장 방문은 ‘산업경쟁력강화 장관회의’와 연계해, 메모리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또 최근 급성장을 거듭 중인 AI-반도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이뤄졌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위기의 삼성, 안정 택했다... 투톱체제 유지

### 삼성전자 사장단 인사

전영현 대표이사 메모리 직접 지휘  
파운드리 사령탑엔 한진만 부사장

위기에 빠진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 재기를 키워드로 2025년 정기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다.

전영현 DS부문장(부회장)과 한중희 DX(디바이스경험) 부문장(부회장)을 재신임하고 ‘투톱’ 체제를 유지하고 전 부회장에게는 핵심 사업부인 메모리 사업부까지 함께 맡기며 권한을 대폭 확장시켰다.

사업지원태스크포스(TF)의 사령탑인 정현호 부회장도 유임시키는 등 부회장 체제를 강화했다. 퇴임한 인사를 불러들이거나 과거 경영진들은 보직만 변경되면서 혁신보다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는 분석이다. **〈관련기사 4면〉**

삼성전자는 27일 사장 승진 2명, 위

촉업무 변경 7명 등 총 9명 규모의 2025년 정기 사장단 인사를 발표했다.

한중희-전영현 2인 대표이사 체제를 새롭게 구축하며 실적악화에 시달린 반도체 부문을 더욱 견고히 하는데 주력했다. 기존 한중희 부회장 단독 대표이사 체제에서 다시 전 부회장까지 합류하며 두 대표이사 체제로 나선 것이다. 또 메모리 사업부를 대표이사 체제로 강화하는 한편 파운드리 사업부장을 교체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인사의 특징으로 불확실한 대내외 경영환경 극복과 새 도약을 위해 ▲메모리 사업부를 대표이사 직할체제로 전환하고 ▲파운드리(위탁생산) 사업 수장을 교체했으며 ▲경영역량이 입증된 베테랑 사장에게 신사업 발굴 과제를 부여하는 등 쇄신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또 반도체 기술 경쟁력 강화 및 조직

분위기 일신을 위해 ▲파운드리사업부에 사장급 CTO 보직과 ▲DS부문 직속의 사장급 경영전략담당 보직을 신설했고, 시니어 사장들에게 브랜드 및 소비자경험 혁신 같은 도전과제를 부여해 회사의 중장기 가치 제고에 주력한다고 밝혔다.

이에 삼성전자는 메모리 사업부를 대표이사 체제로 강화하고 전 부회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켰다. 또 그룹 컨트론타워 역할을 맡는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장인 정현호 부회장도 유임시켰다.

반면 파운드리 사업부 사령탑은 한진만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 미주 총괄 부사장으로 교체됐다. 또 사장급 최고기술책임자(CTO) 보직을 신설하고 남석우 DS 부문 글로벌제조&인프라총괄 제조&기술담당 사장을 배치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 BSI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윤, 중장진급자들에 “안보사항 엄중... 군대비태세 유지” 당부 /사진 뉴시스  
▲“불법” vs “적법”... 횡단보도 걸친 한 동훈 차 놓고 ‘시끌’

▲국민의힘, 민주당 434억 환수 위한 ‘강제집행 면탈 방지법’ 발의  
▲야, 법사위서 양곡관리법 등 강행 처리... 농림부 장관 해임 추진도



▲학교 찾은 이재명... ‘고교 무상교육’ 강조 /사진 뉴시스  
▲민주, 채상병국정조사특위 명단 제출... 위원장에 5선 정동영